

전국 아파트값, 매매가 ↑ 전셋값은 ↓

전국 아파트값이 매매가 오름세와 전셋값 하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전국적 기조에도 서울만은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목표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에 따르면 29일 기준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5% 상승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0.06% 하락했다.

이번주 서울은 매매 0.31%, 전세 0.06% 상승했다.

전국 매매시장은 금리인상 기조와 정책적 요인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재건축 사업으로 상승세가

한국감정원, 전국 아파트가격 통계 발표 금리인상 등 불구 개발호재 지역 상승세 전세시장, 한파 등 영향 이사 수요 줄어

높았던 지역은 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부담금 발표 영향으로 매수세가 진중해지는 분위기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번주 매매가격은 수도권 0.14% 상승, 지방은 0.04% 하락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0.31% 올랐다. 경기는 0.07% 상승, 인천은 보합했다.

서울은 재건축 규제 가능성 등으로 강남구를 비롯 강남권을 중심으로

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목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북권(0.24%)에서는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기대 등으로 용산구에서 상승, 역세권 및 한강변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성동구와 광진구에서 상승했다. 강남권(0.37%)에서는 기업이주에 따른 수요증가로 강서구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 강남·송파·양천구 등은 재건축사업 불확

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

경기는 화성시와 평택시 등 신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남부지역에서 수급불균형 문제로 하락했다. 서울 집근성과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격은 광주(0.15%), 전남(0.14%) 등은 상승한 반면 충북(-0.18%), 경남(-0.17%), 경북(-0.15%), 제주(-0.12%)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한파와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로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은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전세매물이 누적되면서 하락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수도권과 지방 각각 0.08%, 0.06%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세에도 서울(0.06%)만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인근 등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7%, 0.06% 하락했다.

지방은 전주에 이어 0.05% 하락했다. 제주는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증가해 상승 전환했다. 충북은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하지만 세종은 대규모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공급 증가로 26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울산과 경상권은 경기침체로 하락했다.

주요 시도별 전세가격은 전주(0.11%), 광주(0.08%), 충북(0.07%), 대전(0.06%) 등은 오른 반면 세종(-0.26%), 경남(-0.25%), 울산(-0.19%), 경기(-0.17%) 등은 떨어졌다.

뉴스스



코카콜라음료, 일부 제품 출고가 평균 4.8% 인상

코카콜라음료가 일부 제품의 출가를 평균 4.8% 올린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살펴보고 있다. 인상 품목은 전체 215개 제품 중 17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코카콜라 250ml 캔 제품은 5.1%, 500ml 페트 제품은 3.5%, 1.5ℓ 페트 제품은 4.5%, 미테치는 5.4% 오른다.

“금연 등으로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하세요”

보험료 내기 어려워졌다면 ‘감액제도’ 활용도

금연 등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면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일이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

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해진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

체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약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경제 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가입자가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에는 ‘감액환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

뉴스스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 사전예약 돌입

오는 12일부터 판매... 판매가 2135만~2450만

현대자동차가 올해 선보이는 첫 신차 ‘신형 벨로스터’의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격 판매는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현대차는 사전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합 시플랫폼 카카오톡(아이)이 적용된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톡 미니와 카카오톡 전용 피규어, 멜론 6개월 스트리밍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형 벨로스터는 1세대 벨로스터의 풀체인지 모델로 지난 1월 열린 2018 북미 국제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유니크한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뛰어난 안전성과 편의성 등 기본에 충실하게 재탄생했다는 평가다.

특히 벨로스터 1세대의 특징이었던 센터 머플러와 ‘1+2 도어’ 비대칭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도 루프를 낮추고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을 새롭게 적용하는 등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인체공학적 설계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센터페시아, 돌출형 네비게이션, 앞유리가 아닌 별도 유리판에 주행 정보를 표시하는 등 컴비너 타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했다.

신형 벨로스터는 가솔린 1.4 터보 1.6 터보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됐다. 가솔린 1.4 터보 모델은 모던, 모던 코어,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스포츠, 스포츠 코어 등 총 4개 트림으로 운영된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4터보 모던 2135만원~2155만원 ▲모던 코어 2339만원~2359만원, 1.6터보 ▲스포츠 2200만원~2220만원 ▲스포츠 코어 2430만원~2450만원이다.

뉴스스

43년간 판매된 최장수 초콜릿 롯데 ‘가나’ 누적 매출 1조 돌파

국내 최장수 초콜릿인 ‘가나’ 초콜릿의 누적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롯데제과는 가나 초콜릿이 1975년 3월 첫 시판 이후 현재까지 판매 매출이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매출 실적을 개수로 환산하면 약 57억갑으로 제품 출시 이래 매초마다 4개 이상 팔린 셈이다. 이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 둘레를 약 21바퀴 돌 수 있는 분량이다.

가나는 지난 43년간 판매된 국내 최장수 초콜릿이다. 해외의 우수한 수인력을 직접 초빙해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원료를 미립자 형태



로 같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그라인드’ 공법을 사용하거나 높은 함량의 카카오 버터를 사용하는 등 1970년대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초콜릿 제조공법이 적용됐다.

롯데 관계자는 “올해는 신제품들의 반응이 좋고 광고 모델인 ‘워너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